

“프로농구, 대학과 다르다”

KT 12연패 탈출 주역 허훈, 연세대 동기생 안영준과 신인상 경쟁 치열

프로농구 부산 KT의 신인 허훈(23·180cm)이 오랜만에 이름값을 했다. 허훈은 1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 새내기 패기를 앞세워 연장에서 6점을 올리는 등 11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KT의 97-96 승리에 일조했다. KT는 12연패에서 탈출했다.



프로농구 부산 KT의 신인 허훈

허훈은 지난해 국내선수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KT 유니폼을 입었다. 아버지 허재(53) 국가대표팀 감독의 재능과 좋은 몸을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프로 무대는 달랐다. 자신보다 키가 크고 빠르면서 기량도 좋은 선배들이 많다.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외국인 선수의 존재도 새롭다.

허훈은 “연패를 끊어 매우 기쁘다. 연장전에서 운이 따른 면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잘 되든 안 되든 자신감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12연패를 당하는 동안 힘들었다. 팀 분위기가 떨어졌고 개인적으로 자신감도 많이 잃었다. 오늘 승리를 계기로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한 단계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맞서겠다”는 마음이다.

당초 허훈은 드래프트 1순위답게 가장 유력한 신인상 후보로 평가받았다. 최근 분위기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서울 SK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포워드 안영준(23·194.6cm) 때문이다. 안영준은 드래프트 4순위로 허훈과 연세대 동기생이다. 22경기에서 평균 19분28초를 뛰며 5.9점 3.4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허훈은 21경기에서 평균 25분12초 동안 9.3점 3.7어시스트를 올렸다. 개인 기록에서 허훈이 앞서지만 안영준의 가치도 이에 못지않다. 선수층이 두꺼운 SK에서 당당히 주전급 식스맨으로 연착륙해 선배들의 부상 공백을 최소화했다.

수비와 리바운드, 간간이 터뜨리는 외곽슛이 장점이다. 무엇보다 SK는 공동 2위로 팀 성적 프리마켓을 누리고 있다.

기자단 투표로 선정되는 신인상의 행배는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 남은 경기 수가 많고 팀 성적 개인 기록 공헌도 등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두고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변수가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개인 기록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팀 순위가 높은 선수에게 표가 가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진 감도 없잖아.

최하위 팀 소속 허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눈에 보이는 수치 부분과 배짱, 스타성은 훌륭하지만 수

비와 경기 조율에서 약점이 두드러지고 특히 공을 지나치게 소유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록 역시 출전시간을 대비하면 안영준이 크게 밀린다고 하기 어렵다. 허훈이 6분가량 더 뛰고 있다.

호름데로라면 허훈과 안영준의 신인상 경쟁은 6라운드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허훈은 “신인상은 생애 한 번 뿐인 상이기 때문에 욕심이 난다”면서도 “지금쯤 팀에 더 초점을 두고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팀이 먼저다. 열심히 하더라도 좋은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는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뉴시스

정효근·김민수·최진수, 프로농구 올스타전 ‘덩크 콘테스트’ 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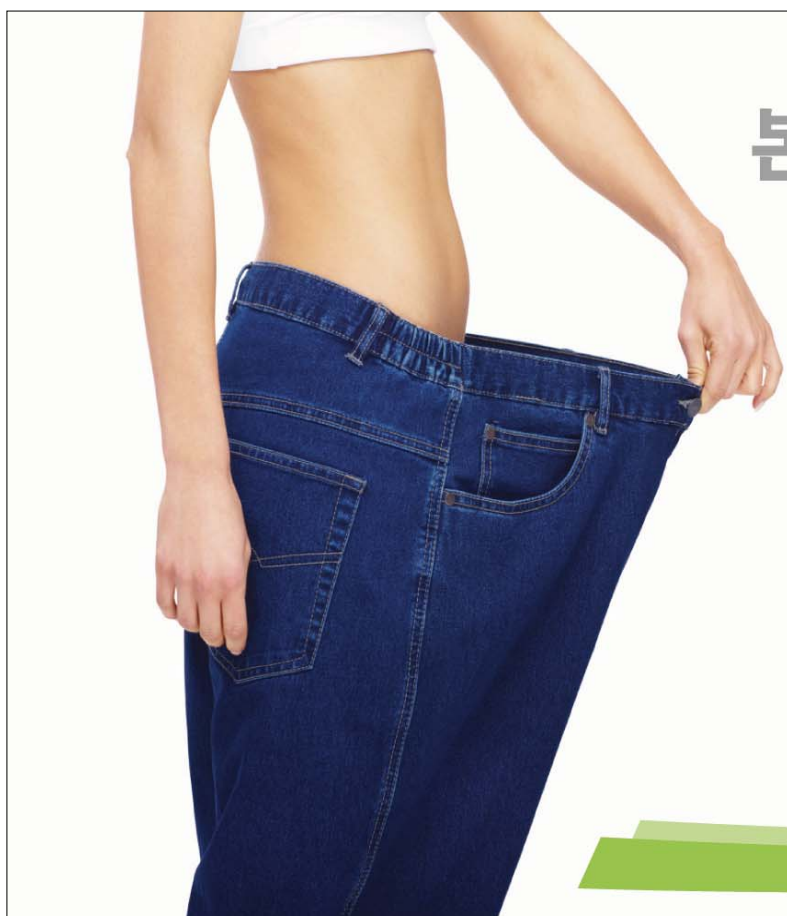
프로농구 올스타전 ‘덩크 콘테스트’에서 정효근(인천 전자랜드), 김민수(서울 SK), 최진수(고양 오리온) 등이 격돌한다.

KBL은 11일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 DB순회보합덩크 콘테스트와 ‘게트레이’ 3점슛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덩크 콘테스트 국내 선수 부문에는

2014~2015시즌 덩크왕 정효근을 비롯해 김민수, 최진수, 안영준(SK), 김진용(전주 KCC)이 참가한다.

외국 선수 부문에는 마이크 블레이클라(울산 현대모비스), 2011~2012시즌 우승자 찰스 로드(KCC), 매 경기 명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디온테 버븐(원주 DB), 류제이 퍼터슨(인양 KCC 인삼공사) 등이 출격한다. /뉴시스

프로농구 최고 슈터의 자리를 놓고 승부가 펼쳐지는 3점슛 콘테스트에는 지난해 우승자 전주범(현대모비스)을 비롯해 두경민(DB), 김동욱(서울 삼성), 테리코 화이트(SK), 송창용(KCC) 등 각 팀을 대표하는 슈터들이 나선다. 올스타전은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FA 채태인, 롯데 자이언츠행 카운트다운

2017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채태인(36)이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다.

채태인의 원 소속구단인 넥센 히어로즈 관계자는 11일 “채태인을 사인 앤드 트레이드하기로 롯데 자이언츠와 구두로 합의했다”며 “일단 채태인과 FA 계약을 해야한다. 행정적인 작업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도 “채태인 영입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 풀어야 할 절차가 있고, 넥센과 논의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넥센은 “훈련량 박병호가 복귀하고 경쟁력이 가능성을 보여준 상황에서 포지션이 겹치는 채태인과 재계약에 소극적이었다.채태인은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준적극’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각 팀이 젊은 선수 육성에 집중하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동지를 찾지 못했다.

넥센이 보상 선수 없이 보상금만 받고 채태인을 풀어주겠다고 선언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계약하지 못했다.

보상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연봉이 3억원인 채태인을 영입하는 구단은 넥센에 보상금으로 9억원을 줘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가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영입할 의사를 내비



쳤고, 양 팀은 구두로 합의했다.

넥센은 최근 채태인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원 소속팀이 계약을 한 후 트레이드 하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을 취

하면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

손아섭 잔류와 민병헌 영입으로 이번 겨울 적잖게 돈을 쓴 롯데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을 취하면 보상금을 아끼면서 타선을 강화할 수 있다.

부산상고 시절 좌완 투수로 활약한 채태인은 2001년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했지만, 그해 윈 어게 수술을 받았다. 2005년 방출당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군 복무를 마친 채태인은 2007년 해외파 특별 지명으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었고, 타자로서 전향했다.

2016년 3월 투수 김재우와 1대 1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으로 이적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11시즌 동안 통산 981경기에 나선 채태인은 통산 타율 0.301 100홈런 550타점 415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타율 0.322(342타수 110안타) 12홈런 62타점 46득점을 기록했다.

장타력을 갖춘 좌타자 채태인이 합류하면 롯데는 우타자 1루수인 이대호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 타선의 좌우 균형을 맞추고 한층 파괴력을 더할 수 있다. /뉴시스

이승기·한교원, 2020년까지 전북 현대... 3년 재계약 체결

미드필더 이승기와 한교원이 2020년까지 전북 현대와 연을 이어간다.

이승기는 “더 많은 시간을 전주성에 전념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올 시즌 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선수는 2018시즌 녹색 유니폼을 입고 전주성을 누빈다.

2018년 광주에서 정복으로 이적한 이승기는 K리그 82경기(상무 시절 제외)에 출전해 19골 17도움을 기록했다.

2014년과 2017년에는 K리그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을 수상했다.

이승기는 “더 많은 시간을 전주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나를 신뢰해 준만큼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전북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한교원은 201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에서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팀을 두 번째 아시아 정상으로

이끌었다.

한교원은 “구단에서 더욱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나를 신뢰해 준만큼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K리그 2연패와 AFC 챔피언스리그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북은 두 선수를 붙잡는게 성공하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이동욱,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홍보대사 위촉

강원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의 붐업 및 홍보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류스타 이동욱씨를 ‘강원관광홍보대사’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홍보 대사로 위촉한다고 11일 밝혔다.

드라마 호텔킹, 도깨비를 통해 강원도와 인연을 맺은 배우 이동욱씨는 홍보대사로서 강원도와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

특히, 이동욱씨는 지난해 화제의 드라마 ‘도깨비’에서 저승사자의 역할로 큰 신드롬을 일으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인기 한류스타로서 해외 팬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대사로 적극 나서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올림픽 붐업과 강원도 홍보를 위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뉴시스

